

소설가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전 2권·정비 펴냄)은 2000년 세상에 나왔다. 작자의 글에서 황씨는 '고향도 아니면서 전라도에 내려갔다 만난 광주에서의 유혈은 내내 짐이었다'고, '한편으로는 복받은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나쁜 일이기도 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1980년 이후 격동하는 한국 사회와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배경으로 그 시절이 임태한 '시당'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다고 했다.

'오래된 정원'(4일 개봉)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관심을 끌었던 건 무엇보다 '임상수'라는 이름 때문이다. 박정희 시해 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과 '비름난 가족'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독특한 시선으로 해부했던 그가 시대와 사랑을 버무려낸 모양새는 어떨까?



## 황석영 원작소설 영화 '오래된 정원'

# 임상수식 '사랑 이야기'는 아래?

### 6개월의 사랑, 17년의 이별

1980년, 도피 생활을 하던 운동권 오현우는 자신을 숨겨줄 사람으로 미술교사 윤희를 소개받는다. 시끌마을 '갈뫼'에서 생활하며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지만 동료들이 모두 불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현우는 떠날 준비를 한다.

경찰에 불잡혀 17년간 복역한 현우가 출소 후 듣게 된 소식은 '한선생의 죽음' 갈뫼를 찾아간 현우는 그녀가 남겨놓은 일기장과 그림을 통해 아픈 시간을 더듬는다.

70, 80학번 세대들에게 그 시절은 '서정시가 불가능했던 시절'로 기억된다. 현우와 윤희 역시 '은전한 사랑'을 하기에는, '지금 여기 있을 때 만이라도 나만 좀 생각해 주면 안될까?'라는 윤희의 대사

### 1980년대 그때 아픔보다 더 아픈 사랑

처럼 버겁기만하다. 영화는 출소 후 현우의 모습과 윤희의 일기장을 고스란히 담긴 과거의 장면들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준다. 출소 후 가족들과 상추ップ을 하며 울음을 터트리던 현우의 모습, 6개월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현우를 떠나보내던 날 빗방울이 떨어지던 윤희의 하얀 고무신, 딸의 존재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던 현우의 모습은 코끝을 아리게 한다.

임감독은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림과 동시에 '운동권'들의 위선에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또 1986년 '건대사태'를 묘사한 격렬한 시위장면과 학출 노동자 미경의 분신장면 등 시대 상도 충실히 재현한다.

배우들의 연기는 안정적이다. 폭넓은 연령대를 보여준 진진희와 원작의 윤희보다 훨씬 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엄정아의 연기는 인상적이며 윤여정·박해숙 등 중견 배우들의 연기도 극을 잘 받쳐준다.

'오래된 정원'은 '함께했던 시대의 기억' 탓에 영화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 '사노라면'의 비장한 감성에 공감하는 60~80학번 세대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영화다.

반면 크라잉 넛의 흥겨운 '사노라면'에 익숙해진 20대 관객들에게는 영화를 같이 본 후 '저런 시절이 있었나' 싶었다는 한 후배의 말처럼 조금은 베거운 사랑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 영화 VS 소설 가슴 아린 에피소드 절절한 대화 그대로 녹아

황석영의 소설은 지금까지 25만부가 판매됐다. 출간 후 매달 1천여부 정도는 꾸준히 나갔고 영화 개봉을 앞둔 12월에는 5천여부가 팔려나갔다.

영화가 원작과 가장 다른 부분은 윤희의 베를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 씨의 베를린 체류 경험을 녹아 있



는 이 부분은 책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윤희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랑을 만난다.

감독에 있는 현우 대신 윤희의 든든한 베이자 동지였던 '송영태'라는 인물은 영화에서는 후배 '영작'으로 모습을 바꾸었고,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우의 감옥생활 등도 대부분 생략됐다.

하지만 가슴을 아리게 하는 두 사람의 에피소드와 절절한 대화들은 그대로 영화에 삽입됐

다.

오현우 역을 맡은 진진희가 한 인터뷰에서 "솔직히 원작은 지루해서 다 읽지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난 후 읽어본 소설은 재미있게 익히면서도 중간 중간 건너뛰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그건 아마도 책이 처음 출간되던 2000년과 영화가 만들어진 2007년 사이, 이 시대가 변해버린 탓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주목! 이 영화

### 시공간 초월 첫사랑 교체 프로젝트

#### '언니가 간다'

누구에게나 되돌리고픈 과거가 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더 치열하게 후회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에게 단 1주일간 과거로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때 돌아가고 싶은가.

영화 '언니가 간다'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열여덟 살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기로 한다. 오태훈과 행복한 '현재'를 만들기 위해 조하늬와의 첫사랑에 목매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오태훈과 엮여주기 위해 밭벗고 나선 것.

'이중간첩' 후 오랜만에 복귀한 공포물 '아파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고소영이 상큼 발랄한 정주 역을 맡았으며 이범수가 태훈역으로 출연한다. 조안과 유건이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을 맡았다.

듀스의 '하늘 아래서'와 '나를 바라봐', 빼빼와 PC통신, 게스 청바지 등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아이템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다. (12세 관람가)



는 록스타가 돼 TV에 출연하며 정주의 열여덟 살 고교생 시절로 돌아가기로 한다. 오태훈과 행복한 '현재'를 만들기 위해 조하늬와의 첫사랑에 목매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오태훈과 엮여주기 위해 밭벗고 나선 것.

'이중간첩' 후 오랜만에 복귀한 공포물 '아파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고소영이 상큼 발랄한 정주 역을 맡았으며 이범수가 태훈역으로 출연한다. 조안과 유건이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을 맡았다.

듀스의 '하늘 아래서'와 '나를 바라봐', 빼빼와 PC통신, 게스 청바지 등 '그 시절'

을 추억하게 하는 아이템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계는 지금

#### 정우성 '적벽대전' 캐스팅 제의

톱스타 정우성(정우성)이 할리우드 대작 '적벽대전(Battle of Red Cliff)'에 캐스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 영화의 프로듀서 테레스 청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최근 홍콩발로 전했다.

청은 "홍콩 출신 우위션(우우삼) 감독의 신작 '적벽대전'에 한국 영화배우 정우성을 출연시키는 것을 고려해 그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 '그놈 목소리' 흠피 스페셜 메뉴

지난해 1월 공모시작이 만료된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사건'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그놈 목소리' 감독 박진표, 제작 영화사 집)가 실제 범인의 행적을 반영, 44일간의 피말리는 유괴 상황을 피해 부모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홈페이지(www.hisvoice.co.kr)를 2일 오픈했다.

홈페이지의 스페셜 메뉴 '피말리는 44일'은 유괴범의 자지에 따라 서울 전역을 헤매고 다니는 영화 속 부모의 동선을 네 티즌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경구·김남주 주연의 '그놈 목소리'는 2월 1일 개봉할 예정이다.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오래된 정원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목포 롯데, 목포 프리미스, 순천 롯데, 순천 프리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미스
언니가 간다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인, 목포 프리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미스
부끄러울 땅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미스, 여수 씨너스
나루토 대홍분!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목포 롯데
초승달 섬의 애니멀 소동	일본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진정한 날카로움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전체 관람가.
007 카지노 로얄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목포 롯데, 목포 메가리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미스, 여수 씨너스
빔박웃이 살아있다	빔이면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박물관에 취업 한 경비원의 죄송증을 모험이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중천	롯데(첨단),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롯데, 목포 프리미스,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미스, 여수 씨너스, 여수 프리미스
올드 미스 디아이리·극장판	동명의 TV시리즈를 영화로 옮겼다.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최미자와 연하남 지피디의 고민하는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12세 관람가.
해피피트	롯데(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 목포 CGV, 여수 씨너스

##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 매월초 개강

제로 중국어 배우들도 수준이 세운다! 끝판으로!

중국어 배우들이 배우는 중국어 배우들이 배우는 중국어

리듬자이나 中国語 学院

중국어 배우들이 배우는 중국어 배우들이 배우는 중국어

Tel. 02-233-9582

##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 교사용 YBM 시사밀리 토익 조성훈 교수 토크 쇼!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교사용 YBM 시사밀리 토익 조성훈 교수 토크 쇼!

교사용 YBM 시사밀리 토익 조성훈 교수 토크 쇼!